

전산학과

학과 홈페이지 : cs.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350-3502-7

개요

컴퓨터는 현대 첨단 과학기술 및 산업발달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컴퓨터의 응용분야도 가정, 공장, 은행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되어 우수한 전산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본 학과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학과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대학원 과정의 전산학과로서 현재 국내 최고수준의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갖춘 세계수준의 전산학과임을 자부하고 있다. 본 학과에서는 전산학의 이론과 응용을 강조하여 교과 과정이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실험실습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전산학은 급속히 발전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연구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여 새로운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본 학과는 1972년 설립 이래 2012년 2월 현재 1,398명의 학사, 1,748명의 석사, 579명의 박사를 배출하여 우리나라 전산분야의 중추적인 인력을 공급해 왔다.

본 학과 내에는 세 개의 한국과학재단지정 우수연구센터 - 모바일미디어 연구센터(MMRC), 첨단정보기술 연구센터(AITRC) 및 가상현실 연구센터(VRRC), 한 개의 정보통신부지정 정보기술연구센터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센터(SPIC), 한 개의 방위사업청지정 특화연구센터 - 국방소프트웨어설계특화센터(DSRC), 일곱개의 국가지정 연구실 - 컴퓨터 구조 연구실,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실, 인공지능 패턴인식 연구실, 글로벌 USN 연구실, 첨단 데이터베이스 엔진 및 응용 연구실, 멀티미디어 컴퓨팅 연구실, 데이터베이스 연구실과 지식경제부 지원 시멘틱웹첨단연구센터 (SWRC), KAIST-Microsoft 공동연구센터(KMRCC), 모바일SW 플랫폼연구센터(CMSP) 등의 KAIST 연구센터와 GS1 산하 Auto-ID Labs국제공동연구센터, IBM-KAIST 클러스터 컴퓨팅 공동연구센터 (IBM-KAIST CCC)가 있다. 연구조직들은 KAIST 전산학과와 더불어 전국의 대학교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의 유명대학 및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전산학 프로그램으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지정 소프트웨어대학원프로그램, 한국연구재단지정 웹사이트공학전공(WCU), NCRC KAIST-서울의대 시스템 바이오 정보의학대학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석사 Dual degree program은 2009년 베를린 공대(TU Berlin)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덴마크 공대(DTU)와 Georgia Tech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CMU와의 Dual degree program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홍콩과기대(HKUST)와의 Joint degree program도 운영 중이다.

Degree program의 입학절차 및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cs.kaist.ac.kr>

본 전산학과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계 및 제작, 응용 등을 포함한 컴퓨터과학 전반을 교육한다. 특히 **pervasive computing**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융합적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다. 각 분야를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우수한 교수진 (47명, 2012년 2월 현재)과 함께 수많은 첨단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어, 국책과제를 비롯한 정부 출연과제와 많은 산·학·협동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21세기에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컴퓨터 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 졸업후 활동상황

학사과정 졸업생들은 석사과정에 진학하거나 기업체에 취업하고 있으며, 석사 졸업생들은 국내외대학원에 진학하여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기업체와 연구기관에 종견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졸업생의 창업 또한 매우 활발하여 핸디소프트, 퓨처시스템, 나다텔, 인젠, NHN 등의 벤처기업을 창업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8개의 기업이 상장을 하였으며, 73개의 벤처기업이 창업되어, 한국의 창업의 산실이다. 그리고 579명의 박사 졸업생들은 대학교, 기업체 및 연구기관에 취업하여 전산학의 첨단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